

개교 81주년을 기념하며

여러분의 동산학원이 이 축복받은 터에서 개교 81주년 기념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을 위하여 함께 수고해 주신 박상원 총동창회장님과 우창범 사무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무에 많이 바쁘신 허인한 동구청장님! 모교의 행사 때 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광식 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산의 교육을 위하여 몸 받쳐 헌신하신 전임교장선생님 여러분과 전임 이사님 감사님 또 선생님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배 양성을 위하여 해마다 많은 장학금을 주시는 중경회장님과 동문님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은 우리 동산학원에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다사다난한 한해입니다. 청룡기의 영광을 안겨 주셨던 이규정 회장님께서 타계 하셨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모교의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 주셨던 서한샘 회장님께서 타계 하셨습니다. 몸은 떠나셨으나 남기신 업적은 우리 동산인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으리라 믿습니다. 기쁜 소식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박상원 총동창회장님께서 탄생하신 일입니다. 학교의 발전과 함께 총동창회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산학원은 1938년 7월 14일 네 분의 선각자께서 인친 상업전수학교로 시작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는 우민정책으로 조선인 학교를 없애기 위하여



최명수 이사장님
학교법인 동산육영회





재단설립을 못하는 학교는 폐교 명령을 내렸고 학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네 분의 선각자께서는 그 당시 만석꾼의 재산가이셨던 최승우 선생님을 찾아가 재단을 설립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최승우 선생님께서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으나 일찍이 이곳 송림동에 터를 잡으시고 양조장, 정

미소, 객주를 하시며 만석꾼이 되셨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 두취를 세 번이나 하시며 독립투사들에게는 독립자금을 대어 주시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을 대어 주시는 방법으로 애국심과 민족애를 실천하셨습니다. 이 때 출현된 재산은 황해도 해주에 있는 옥토 30만 평으로 1948년 농지 개혁당시 정부로부터 지가증권 4,800석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학교부지 2만 평, 당진염전 20여만 평, 가평 호명산 55만 평 학교관사 4채를 구입하셨습니다.

우리 동산 재단은 최승우 선생님께서 단독으로 설립하신 자랑스러운 민족사학입니다. 이렇게 숭고하고 거룩한 건학이념으로 재단을 설립하신 최승우 선생님께 국민훈장 동백장이 1993년에 추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연하신 재산으로 2013년에 서울 교대 앞에 동구빌딩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산가족 여러분께서 성원에 주신 덕분에 동산의 역사가 제 자리를 잡으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산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숭고한 건학이념을 이어받아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과 선생님 여러분! 학생들을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하여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학교의 주인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입니다. 훌륭한 자녀를 낳아 우리 동산에 보내주신 학부모님들도 우리 동산의 가족입니다. 학교일에 항상 애쓰시는 학부모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7회 동문님이신 김홍규 이사장님과 7회 동문님들께서 청풍기를 기리기 위하여 교문 좌측에 전시관을 준비 중에 계십니다. 모교를 사랑하시고 후배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동산은 신의의 동산입니다. 애국심과 민족애의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꾸준히 발전해 나가도록 재단의 이사님, 감사님들과 교직원 모두와 함께 뜻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근속상을 받으신 아홉 분 선생님! 학생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